모래놀이치료로 여성성을 회복해 가는 이혼가정의 초등학교 5학년 여아에 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a 5th Grade Girl from a Divorced Family Recovering Femininity Through the Sandplay Therapy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심 희 옥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Hee-og Sim

◀ 목 차 ▶

I. 서론	IV. 논의 및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및 해석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how a 5th grade girl from a divorced family recovered her femininity through the sandplay therapy. The client was referred by a social worker in her school because of maladjustments such as passivity in school work, poor peer relations, especially with girls, the usage of bad language and a lack of concern about her appearance. There were 41 sessions of the therapy. The first part of the therapy included 1-7 sessions, the middle part 8-35, and the final part 36-41. The client expressed her situation by showing guardians and a peeing boy and by seeking love in the first part. During the middle part she put copper ballerinas and needed to make them alive. In the final part she set figures facing each other who seemed to have mutual understandings and placed cars running well. The client recovered her femininity through the sandplay therapy in a free and protected space.

주제어(Key Words) : 모래놀이치료(sandplay therapy), 이혼가정(divorced families), 성역할 행동(gender-role behaviors), 대극의 합일(union of opposites)

Corresponding Author : Hee-og Sim,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San 68 Myrondong, Kunsan, 573-701, Korea Tel: +82-63-469-4624 Fax: +82-63-466-2085 E-mail: simh@kunsan.ac.kr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군산대학교 대학자체 학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부모의 이혼은 아동에게 커다란 위기 사건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혼하는 부부의 70% 이상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김혜숙, 2006) 관련 연구들은 이혼가정의 아동이 심리사회적인 적응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이 큰 변인은 부모의 적응, 사회적 지지 그리고 학교와 가정의 관계이고 양육부모와 동성인 아동이 이성인 아동보다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은순, 1998). 또한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이 낮으며(정용주, 2007), 자녀들이 경험한 이혼 스트레스는 자녀의 적응과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자아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주소희, 2007), 이혼가정 아동이 비이혼가정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 유연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강, 2009). 이런 심리사회적인 특성 외에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에 대한 자기지각인 성역할 정체감이나 성역할 행동 같은 것이 부모를 통해 습득됨을 생각할 때 이혼가정의 자녀는 이런 특성을 발달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김정옥, 1995; 변명숙, 성옥련, 2000; 유가효, 1994).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성역할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여러 이론이 아동의 성역할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성역할과 자녀의 부모와의 성동일시는 성의 사회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아동은 사회화를 통해 성역할 정체감을 습득하고 성역할 행동을 발달시킨다.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6세경이 되면 여아도 남아와 같이 이성의 부모가 성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여아는 점점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어머니를 통해 대리만족을 경험하거나 나중에 아버지가 아닌 남성과 이성적인 관계를 맺을 여성의 역할을 준비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여성적인 특성을 자신의 일부로 포함시킨다(Shaffer, 1994).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모델링과 관찰학습 등의 원리로 설명한다. 사회화되어 아동은 자신의 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 즉 성에 적합한 행동을 할 때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강화를 받고 성에 부적합한 행동을 할 때는 벌을 받음으로 자신의 성에 적합한 성역할을 학습한다. 또한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깨달아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차이가 형성되면 아동은 동성의 인물, 특히 동성의 부모와 동일시를 한다고 한다. 여자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여자다운 모델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며 그 결과 그러한 모델과 정서적인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다(김정옥, 1995).

아동의 성역할에 대한 이런 이론들의 설명을 생각할 때

이혼가정의 자녀 특히 아버지와 생활하는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역할 모델의 부재로 동성인 어머니의 이미지를 자기 개념으로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혼이라는 사건으로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아버지나 조부모 등 주변 사람들이 떠난 어머니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언급이 있는 상황이라면 긍정적인 어머니 상이나 여성상을 발달시키는 데는 더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모래상자는 내담자의 정신세계를 표현해 답는 그릇으로 영혼의 정원(a soul garden)과 같은 것이다. 모래상자에 내담자의 내부와 외부의 세계가 전개되고 표현된다. 모래상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자신의 현재의 세계를 신신하게 통찰해 볼 기회를 주는 자유롭고 비어있는 공간이다. 내담자의 내면의 목소리가 말을 할 수 있게 치료자는 안전하고 수용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즉 모래상자에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내용이 펼쳐지고 모아지고 구체화되는데 이 공간은 또한 내담자와 치료자간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에서 내담자와 치료자의 무의식과 의식이 만나 상호작용한다(Ammann, 1994).

모래놀이치료에서 내담자와 치료자는 내담자의 무의식의 상징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서로 경험한다. 내담자의 상징의 장(symbolic field)에서 뇌의 에너지가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를 오가며 상호 교류하여 관계의 장(relational field)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치료자의 존재는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부지불식간 규제하여(심희옥, 2007; Turner, 2005) 내담자가 새로운 자각을 획득하는 내적인 작업을 돕게 된다.

모래놀이치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아동의 심리치료에 효과적이다(Boik & Goodwin, 2000). 첫째, 아동의 공상놀이는 개성화 과정을 돕고 성인세계의 숙달을 촉진하는데 모래와 물은 공상놀이를 돕는다. 두 번째, 내담자로 하여금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게 한다. 세 번째, 모래놀이에서 사용하는 상의 상징이 일반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해 준다. 네 번째, 모래놀이치료는 언어상담보다 덜 위협적이다. 다섯 번째, 치료자가 사용하는 다른 치료기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모래와 물은 내담자의 상처를 치료와 통합이 필요한 곳으로 데려다 준다. 일곱 번째, 모래놀이는 우리의 무의식의 타고난 치유의 힘을 활성화시켜 내담자는 환경의 희생자에서 새로운 세계의 창조자가 되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모래놀이는 외상, 관계문제, 개인의 성장, 자기(self)의 통합과 변형 같은 다양한 삶의 사건들을 다루게 해준다.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에서 성정체감이나 성역할 행동 측면을 탐색한 연구는 희박하다. 김진선(2003)은 극단적인 남성 역할 선호를 보이는 남아 유아 한명과 교차된 여성 선호를 보이는 남아 유아 한명의 모래놀이 표현의 변화과정을

탐색하였다. 모래놀이치료에서 표현의 변화과정을 통합성, 공간배치, 주제, 놀잇감의 사용에서 탐색하였는데, 심리검사 측면에서 여성 역할을 선호한 유아는 모래놀이치료에서 매 회기 놀이 주제가 달랐고, 중반 이후부터는 놀이에 적극성을 띠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으며, 양분된 표현에 통합을 시도하였고, 모래상자의 위와 아래의 공간만을 사용하던 경향이 점차로 가운데 공간도 활용하려고 하였다. 심리검사 결과에서도 여성 역할 선호성에서 남성 역할 선호성으로 변화를 보였다. 이렇게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여성 역할 선호 성향이 강했던 남아 유아가 남성 역할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거나 불충분한 양육으로 어머니의 이미지는 손상된다. 이런 손상된 내면의 이미지는 개인의 지각과 반응을 왜곡시키고 정상적인 성격으로 발달하는 것을 방해한다(Weinrib, 2004). 모래놀이치료는 이런 교란된 모자일체성을 재건축해서 손상된 어머니의 이미지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이다.

Weinrib(2004)은 모래놀이 자체가 여성과 남성에게 여성성을 회복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강조하며 모래놀이치료가 구구성, 자발성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여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내담자가 땅의 요소인 모래를 신체로 만지는데 여성처럼 땅, 모래는 생명과 영양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모래놀이 동안 해석이 없기 때문에 관념 작용이 아니라 체험이 강조된다. 모래놀이는 놀이의 규칙이나 옳고 그른 방법이 없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성적으로 수용하게 해준다.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으로 유아기부터 친할머니, 중학교 2학년 오빠와 다른 지역에서 건축 일을 하시다가 한 달에 2-3일씩 집에 오는 아버지와 생활하며 딸씨가 거칠고 몸을 씻지 않으며 반 친구들 특히 여아들과 잘 못 어울리는 초등학교 5학년 여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이다. 내담자는 아버지와 친근한데 아버지는 내담자의 생모에 대해 부정적이고 내담자에게도 이를 표현해 오고 있다. 이렇듯 내담자는 어머니, 여자의 역할 모델의 부재 가정에서 생활하며 어머니, 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여성스러움이나 여아로서의 행동을 배울 기회가 부족 되었다. 이런 내담자에게 치료자는 모래놀이치료의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제공하여 내담자의 억압된 공격성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게 하고 부정적인 여성성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치료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에서 정체체감이나 성 역할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가 부족하고 내담자가 처한 상황이 이에 적합하여 내담자의 여성성 회복에 목표를 두었다.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내담자의 내재된 공격성과 억압된 여성성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원만한

모래관계와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런 변화를 심리검사, 모래놀이치료 과정과 실생활에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치료시작 당시 만 11세의 5학년 여아로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상담에 의뢰되었다. 복지사의 보고에 의하면, 내담자는 학교 수업에 소극적이고 반 친구들과 전혀 교류가 없는 완전히 따돌림 받는 상태인데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게 된지 오래되어 내담자도 친구들에게 다가가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교실에서는 조용하지만 학교복지실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에서는 말이 많고 활발한데 욕으로 시작하는 아주 거친 말씨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거의 남자 애들하고만 어울리고 집에서 할머니가 몸을 씻으라고 해도 잘 씻지 않는다. 아버지의 보고에 의하면, 내담자에게 생모가 나쁘다는 말을 많이 해 와서 내담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나쁜 여자로 생각할 거라고 한다. 내담자가 저학년일 때 생모가 학교로 찾아와 내담자 얼굴만 보고 간 적도 있는데 상담 받기 전 5학년 때는 생모가 왔을 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어머니에게 다시 찾아오면 파출소에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담자에게 자식을 버리고 나갔으니 엄마를 만나지 말라고 해 왔다.

내담자는 영유아기부터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왔다. 집에는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시지만 할머니는 섬에 가서서 며칠씩 있다가 오시기도 해 여자 아이로 적절히 키움을 받지 못할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런 와중에 아버지는 내담자의 생모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내담자의 어머니상, 여성상이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여자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여자 아이로 외모에 관심을 두거나 외모를 가꾸는 일에도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적절한 돌봄으로 인한 욕구충족의 결여로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어 거칠고 무뚝뚝하며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2. 연구절차

이런 상황의 내담자에게 2008년 10월 6일-2009년 9월 17일까지 1주일에 한번 50분-1시간씩 총 41회기의 모래놀이치료가 행해졌다. 치료실은 모래상자들과 소품들이 있고 놀이 치료가 가능한 공간이었다. 사전 심리검사로 는 내담자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 무의식적인 감정과 갈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투사기법의 그림 검사(강봉규, 1999)인 HTP와 가정과 학교에서 내담자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탐색하기 위해

KFD와 KSD를 실시하였다. 또한 SCT를 실시하여 말로 답하기 어려운 내용의 응답을 통해 내담자의 감정, 태도, 동기, 긴장 등을 파악하였다.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심리검사는 HTP, KFD, KSD와 SCT를 실시하였고 사전 심리검사와 비교를 위해 <부록 1>에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전 심리검사

사전 심리검사로 첫째, HTP의 집그림에서 집은 벽돌로 만들어져 있으나 집기둥이 비뚤어져 있고 문이 집 밖으로 조금 나와 찌그러진 듯 하고 집의 크기에 비해 창문 2개가 작다. 이 집은 할머니의 집으로 할머니, 내담자와 오빠가 산다. 나중에 이 집은 헐어서 재건축을 한다. 집그림은 내담자가 성장해 온 가정상황을 나타내며 자신의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한 인지(김동연, 공마리아, 최외선, 2002)를 보여주는 데 내담자 집은 기둥이 반듯하지 못하고 집의 크기에 비해 창문이 작은 찌그러진 집으로 재건축을 해야 해 내담자의 가정상황이 온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나무그림은 기둥에 비해 수관이 아주 작고 두 개의 열매가 달린 사과나무로 나이는 갓난아이이다. 좀 거칠어 보이는 나무껍질에서 내담자가 거칠고 고집스러우며 불만이 많을 것을 알 수 있고 작은 수관으로 내담자의 자기상이 무척 어린 것을 알 수 있다. 사람그림에서 먼저 그린 사람은 컴퓨터를 하고 있는 남자로 중학교 2학년 오빠인데 상담초기 내담자는 오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다며 오빠를 동경하는 듯하다. 종이 아래 부분에 그렸고 얼굴이 불분명하고 동그란 손을 옆으로 하고 서 있는데 발이 없어 무력해 보인다. 두 번째 그린 사람은 40세의 엄마인데 묶은 긴 머리에 앞을 보고 웃는 모습으로 서 있으나 발이 없다. 이 여자는 아빠와 이혼을 했고 애들을 못 봐서 기분이 좋지 않는데 재결합해서 행복하게 사는 생각을 한다. 이는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내담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두 번째, KFD에서는 “가족이 활동하는 것이 없다”며 “밥 먹는 것도 따로이고 TV나 잠도 따로”라고 한다. 왼편에 서 있는 오빠와 누운 할머니가 오른편 TV의 오락프를 보고 있다. TV를 좋아하지 않아 그리지 않은 내담자는 바깥 PC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 서 있는 오빠, 누워 있는 할머니와 그리지 않은 내담자를 통해 가족의 따뜻함이나 애정적인 모습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KSD에서는 “애들, 선생님과 내담자는 도서관에 갔다”며 공부할 문제, 공부시간에 떠든 사람, 욕하고 싸운 사람 이름이 적힌 철판만 그린다. 교실에 전혀 사람이 없이 해

야 할 일과 잘못된 것을 알리는 철판만 있어 내담자의 학교 생활이 황량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CT 검사의 문항 중 “나는 친구가 조금 있다”, “우리 엄마는 없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빠”, “여자 애들은 없다”,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소꿉 때 엄마가 김밥 싸주지 않은 것”, “우리 엄마 아빠 사이는 멀다”, “내가 만일 먼 외딴 곳에 혼자 살게 된다면, 슈퍼주니어와 제일 같이 살고 싶다”로 응답하였다. SCT에서 친구관계의 어려움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전 심리검사에서 내담자가 경직되어 있고 비활동적이며 자아상이 낮고 사회적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다. 지면이 없는 찌그러진 듯 한 집과 아주 어린 나무와 종이 아래부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서 무력감 같은 내담자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사람그림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오빠인 이성을 먼저 그렸다. 인물화에서 이성 상을 먼저 그리는 사람은 성의 동일시에 혼란이 있거나 자신의 성적 역할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 수 있다(김동연 외, 2002). 사람그림, KFD와 KSD에서 인물의 손이 원 모양으로만 그려져 있는데 이는 교류나 통제, 대처에서 부적절감과 무력감을 나타내는 것이다(신민섭 외, 2002). 또한 인물들의 발이 모두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세상에 혼자 독립적으로 서는 것에 대한 심한 부적절감과 무력감을 말해 주고(신민섭 외, 2002), 굵은 묶은 내담자의 거칠고 완고한 모습을 보여준다(김동연 외, 2002).

2. 모래놀이치료 과정

총 41회기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은 전환을 보이는 치료 흐름에 맞춰 상담초기, 상담중기, 상담말기로 구분할 수 있다. 모래놀이치료 과정은 치료에서 중점을 두는 여성성 회복과 관련된 모래상자, 놀이 상황과 내담자의 언어 등 주요사항만을 제시한다. 치료회기가 길어 주요 모래상자만 <부록 2>에 게재한다. 모래놀이치료 수퍼비전은 최종회기를 마치고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의 수퍼바이저에게 받았다.

1) 상담초기, 내담자의 처지 표현과 퇴행

상담초기는 1-7회기이다. 1회기는 “사람을 지키는 병사들”이라는 제목의 상자인데 병사들이 텐트 안의 것과 모래상자 전체를 방어하는 모습이다. 놀이에서는 오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빠가 학교에서 회장도 했고 키도 180이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2회기에는 여의사와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뱃머리가 아래를 향한 “등대와 어부”라는 제목의 모래상자를 만든다. 3-1회기의 파랗게 드러낸 바닥에 놓인 용궁은 중심은 있어 보이나 여러 바다 생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내면에 풀어내야 할 것이 많음을 보여준다. 3-2회기에

는 오줌 싸게 소년과 거지 소년으로 자아상이 낮은 자신을 표현한다. 모래상자에 하트형으로 초를 놓았고 오른쪽 하단에는 이순신 상을 놓았다. 4-1회기에는 둥근 초 하트 안의 신랑과 신부, 도령과 한복 입은 소녀가 서로 마주 대하고 있으나 소품들이 아래로 몰려 있다. 4-3회기에서는 모래를 부쳐님 상에 뿌리더니 왼쪽 모래를 파 “부처님 무덤, 묻어야지, 여기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라며 묻고, 십자가를 중앙에 묻고, 십자가상 양 옆의 불상 두 개도 묻는다. 모래상자 오른쪽 상단에 음식이 버려져 있다. 5회기에는 델타샌드로 여러 모양을 찍어 낸 것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며 하나하나 망가뜨리는 놀이를 한다. 고운 모래상자의 모래를 해집으며 과격한 말을 하기도 하고 치료자의 눈치를 보며 여러 가지 거친 말을 쏟아낸다. 6회기에는 모래상자를 만들지 않고 놀이에서 여러 가지 욕이 섞인 말들을 많이 한다. 조그만 공에 물이 묻자 “물 묻었다, 물 묻는 것 진짜 싫어, 이놈의 새끼, 물 더 묻혀야지” 등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내재된 공격성을 표출한다. 7-1회기에는 “내담자는 싸움을 잘 한다”는 남자 아이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고운 모래를 힘차게 가르고 만지며 심리적으로 깊이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상담초기에 내담자는 불안하고 사회적인 소통이 어려우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 깊은 부분이 억압되어 있는 것과 내재된 공격성을 표출하며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는데 모래를 만지며 심리적으로 깊이 퇴행을 한다. 1회기 모래상자에 병사들을 놓고 오빠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7회기에 내담자는 싸움을 잘한다며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에서 내담자의 남성상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2) 상담중기, 동 발레리나의 등장과 여성성 회복을 위한 투쟁

상담중기는 8-35회로 8-1회기에는 모래상자에 권투, 태권도와 골프하는 사람들을 표현해 활발해진 모습을 보이고 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자세의 발레리나를 놓았다. 9회기에는 풋볼을 밝히며 의식화 작업을 하는데 제목은 “생일 파티”로 풋볼 하트 안에 휠체어를 탄 여아가 있다. 내담자는 이 여아를 놓으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14회기의 모래상자는 병원으로 여러 의사와 환자가 있고 간호사가 남아를 돌보는 모습이 있다. 15회기에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앞머리를 다듬고 왔고 내담자의 몸에서는 향긋한 냄새도 난다. 복지사선생님에 의하면 내담자는 요즘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덜 사용하는데 여전히 남자 애들 하고만 어울린다고 한다. 16회기에 다시 운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모래상자에 동으로 만들어진 발레리나가 있다. 놀이에서는 머핀 틀로 빵을 만들기도 하고 상담자와 내담자를 위한 김밥을 만들기도 하나 만든 것들을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 부순다. 17회기

에 젖주는 엄마 등으로 “옛날 마을”을 꾸민다. 놀이에서는 낚시를 하기도 하고 상담자를 위해 김밥과 초콜릿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20회기의 놀이에서는 영유아기로 심리적으로 퇴행을 해 고리 돌리게로 재미나게 놀고 커다란 개구리 모양 틀에 담긴 모래를 틀 안에서 던지며 놀기도 한다. 내담자는 편안히 방바닥에 엎드려 손과 발을 통통거리기도 한다. 22회기는 우글거리는 뱀들이 있는 모래상자를 꾸렸는데 뱀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많다. 24회기 “동물”에서는 뱀, 박쥐, 도마뱀 등 이상한 동물들이 다 죽게 되는 재생을 의미하는 모래상자를 만들었다. 25회기 “불교와 기독교”에서는 4-3회기와는 달리 부처와 십자가상들이 제대로 드러났다. 26회기 “영웅”에서는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이 나타나 말 탄 기사와 싸우는 듯하다. 27회기 “음식 파는 사람들”에서는 음식물들이 오른쪽에 정돈되어 있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판다. 28회기에는 썰매타는 아이, 옛장수, 아주머니 등 한복차림의 여러 사람들을 놓았다. 31회기에는 젖어 있는 모래상자에서 손가락으로 모래를 좌우로 긁기도 하고 모래로 크게 소용돌이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모래를 손으로 밀어 손등으로 모래가 올라오게 하기도 하고 모래를 다독이기도 한다. 이 회기에 내담자는 자신의 주변 아주머니들에 대해 비난하고 화를 내며 내담자 무의식 속의 부정적인 모성상을 드러낸다. 그러다가 갑자기 “늙어빠진 아줌마가 진짜 보고 싶다”고 한다. 32회기 “줄업파티”에서는 초들이 돌하루방 등으로 둘러싸인 모래상자를 만들고 상담실에 데려다 주는 대학교 4학년 언니의 졸업 파티를 해 주고 싶다고 자신에게 잘 대해 주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한다. 이처럼 풋볼을 밝히며 내담자는 자신의 자아를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33회기에는 막대로 모래상자 바닥을 드러내기도 하고 모래를 구분 짓는다. 35회기에는 탈춤 추는 사람과 평상에서 공부하는 여아를 놓고 수학공부를 하는 자신이라며 탈춤꾼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방해한다. 탈춤 추는 사람들은 내담자 마음을 방해하는 트릭스터들로 내담자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 같다.

상담중기는 동 발레리나로 생동감이 없는 내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며 뱀, 박쥐 등 이상한 동물이 다 죽게 되는 재생의 모래상자를 만들고 부처와 십자가 같은 자기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의식화 작업을 해 내담자는 실생활에서 밝아지고 여자 친구를 사귀기도 한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상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상담초기 아래로 쏠려 있던 소품들이 중앙에 정돈되기도 한다. 8-1과 16회기의 동 발레리나는 17과 28회기에 생동감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또한 상담초기 키 쓴 오줌 싸게 아이나 거지 아이 같았던 내담자가 휠체어를 탄 여아로 변화된다. 그런데 이 여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구분이 안 되나 의문은

갖고 있다. 14회기에서 간호사에게 돌봄을 받는 아이도 남아 있다. 31회기 주변 아주머니들에 대해 비난하고 화를 내며 부정적인 모성상을 드러내지만 생모를 그리워하고 32회기에는 타인을 돌보는 여성적인 특성을 표현한다.

3) 상담말기, 내면의 재건축과 대극의 합일

상담말기는 36-41회기로 36-2회기에서는 “이쁜집”이라며 튼튼한 동굴을 만들어 내담자의 내면을 재건축하고 있다. 37회기에는 이집트 상들을 가져다 놓았고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모래상자를 꾸렸는데 이는 상담중기 뱀 상에서도 그랬듯이 또 다른 단계로 전환하는 장면이다. 38회기에는 여러 종들을 세로로 줄지어 놓았는데 “수업 중”이라며 수업을 받으러 들어간단다. 종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39회기에는 “결혼을 했다”며 전통한복 차림의 서 있는 신랑과 신부상을 놓고 여러 고전 상들을 놓는다. 서로 마주보는 상들로 소통이 되고 있음을 표현한다. 41회기(최종회기)에는 레이스 대결을 하는 여러 대의 차들을 놓았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노란 차가 1등을 한단다. 여러 대의 차들을 놓아 에너지가 올라와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모래놀이치료는 종료된다.

상담말기는 내담자의 내면을 재건축하며 종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신랑과 신부상들이 서로 마주보며 소통하는 모래상자를 만들어 내담자는 활력을 되찾으며 모래놀이치료는 종료된다.

3. 사후 심리검사

사후 심리검사로 실시된 HTP, KFD, KSD 그리고 SCT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첫째, HTP의 집그림에서 벽돌로 된 아파트를 그렸다. 내담자, 오빠, 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 집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다. 집이 오래 되면 포크레인으로 헐어서 빌딩으로 잘 지어진다. 거친 수피가 사라진 사후 검사의 나무그림은 5세의 소나무로 소원은 나뭇잎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은 겨울로 2개월 후면 잎이 난다. 수관은 여전히 어려 보이나 훌쩍 큰 나무이다. 사람그림에서 먼저 그린 사람은 13세의 웃고 있는 여아이고 왼편에 남아를 그리고 여아는 남아가 쓰레기 줍는 것을 도와준단다. 두 번째 사람은 13세 남자로 운동장에 가면서 애들하고 그네와 축구할 생각으로 기분이 좋다. 모래놀이치료 후 내담자의 집은 허물어질 듯 한 집에서 아파트로 바뀌었다. 나무는 수관이 작아 여전히 어려 보이지만 사전검사 때보다는 많이 큰 나무이다. 사전 심리검사의 사람그림과는 달리 사후검사에서는 여아를 먼저 그렸다.

두 번째, KFD에서는 “화목하게” 오빠, 할머니와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고 그리지 않은 내담자는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 내담자는 거실에 있어 그리지 않았지만 나

지 가족이 다 그려져 있고 사전 검사와는 달리 내담자도 화목한 집안에 있다.

네 번째, KSD에는 칠판과 남아 세 명만 있고 내담자와 여자애들은 밖에서 피구를 하고 있다. 그리지는 않았지만 내담자는 여자 친구들과 밖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 치료 전 여자 아이들과 관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CT에서 “나는 친구가 많고 착하다”, “우리 엄마는 보통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선생님”, “여자 애들은 착하다”,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 엄마 아빠 사이는 좋다”, “내가 만일 먼 외딴 곳에 혼자 살게 된다면 친구와 제일 같이 살고 싶다”로 응답하였다. 이제 여자 친구들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이 생기고 친구관계가 많이 원만해진 것을 알 수 있고 내담자의 부정적인 정서도 많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시기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아버지, 중학생 오빠와 생활하는 초등학교 5학년 여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이다. 내담자는 학교에서 학업에 소극적이며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말씨가 거칠며 몸을 잘 씻지 않는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내담자가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어떤 변화과정을 밟으며 내재된 공격성을 표출하고 억압되었던 여성성을 회복하는지 그 변화과정을 탐색하여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총 41회기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은 전환이 이루어지는 치료 흐름에 맞춰 상담초기는 1-7회기, 상담중기는 8-35회기, 상담말기는 36-41회기로 구분하였다. 전체 모래놀이치료, 놀이 상황과 실생활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먼저, 상담초기(내담자의 처지 표현과 퇴행)에 내담자는 사전 심리검사에서도 잘 표현했듯이 자신이 불안하고 자아상이 낮으며 사회적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다. 먼저 첫 회기 “사람을 지키는 병사들”이라는 제목의 상자에서 병사들이 텐트와 모래상자 전체를 지키는 듯 한 모습으로 내담자가 불안이 높고 경직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Buhler에 의하면 고정된 형태로 소품을 한 줄로 늘어놓는 것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세계의 표현으로 이러한 배치는 내담자의 내면이 공허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김진선, 2003, 재인용).

2회기의 “등대와 어부”에서는 뱃머리들이 아래를 향해 있어 사회적인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남녀 경찰들과 여자 의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모래상자가 긴장되어 보인다. 3-2회기 “초의 사랑”은 초로 커다란 하트를 만들고 중앙에 키를 쓰고 울고 있는 소년과 거지 소년을 놓았는데

데 이들은 내담자의 낮은 자아상의 표현으로 다 남아이며 사랑과 관심을 구하는 있는 모습이다. 오른편 하단의 이순신 동상에서 내담자의 공격성을 읽을 수 있다.

또한 4-3회기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었음을 버려진 음식들로 표현하고, 자기(self) 상인 부처나 십자가상이 모래에 묻혀 소통이 안 되고 깊은 부분이 억압되어 있음을 표현한다. 모래 속에 소품을 묻는 것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거부와 억압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김진선, 2003).

이렇게 불안하고 경계적이며 자아상이 낮았던 내담자가 7회기에 모래를 힘차게 만지며 심리적으로 깊이 퇴행을 하면서 활력을 찾아 간다. 모래에 손을 전혀 대지 않는 것은 자아의 허약함, 무의식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김진선, 2003). 이렇듯 모래는 창조적인 퇴행을 불러일으킨다(Weinrib, 2004). 또한 모래는 정신적인 상처가 있던 그 시점으로 내담자를 가게 해 그 곳에서부터 내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하는 자율적인 치유 능력이 있다.

두 번째로, 상담중기(동 발레리나의 등장과 여성성 회복을 위한 투쟁)인 8회기에서는 모래상자에 권투, 태권도와 골프하는 사람들을 표현해 활발해진 모습인데 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자세의 발레리나가 있다. 9회기 “생일 파티”에서는 촛불을 밝히며 의식화 작업을 하고 상담초기에 우는 오줌 싸거나 거지 아이 같았던 내담자가 컸으나 월채어를 탄 여아로 자신을 표현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여아를 하트 모양의 촛불 안에 놓아 내담자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함을 표현하고 있다. 14회기에는 병원 장면을 꾸며 간호사가 남아를 돌보는데 이는 내담자의 내면이 치료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16회기는 “운동하는 사람들”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모래상자를 꾸며 내담자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음을 표현하는데 동으로 만들어진 발레리나들이 다시 등장한다. 동은 색깔도 어둡고 생동감이 없어 내담자의 여성적인 부분의 그림자 같다. 또한 이는 내담자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과 감성을 나타낸 것이다. 내담자는 이 부분을 살려내어 여아로서의 부드러움과 감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Weinrib(2004)이 모래놀이 자체가 여성과 남성에게 여성성을 회복할 기회를 준다는 주장을 생각하건대 내담자는 모래를 손으로 만지는 체험을 통해 여성적인 특성을 습득해 나갈 수 있었다.

22회기에는 뱀들이 우글거리는 상자를 꾸미며 뱀이 아기를 많이 낳았단다. 여기서 뱀은 에너지원으로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확고한 발판이 되게 한 것 같다. 이제 내담자는 에너지가 많아졌다. 24회기에는 뱀, 박쥐, 도마뱀 등 이상한 동물들이 사이가 좋다가 늙어서 다 죽게 된다고 한다. 뱀은 껍질을 벗어 변형하는데 이는 죽음에서 재생을 의미한

다(Adams, 2010; Hoebrechts, 2003). 죽음(Mortificatio)은 항복, 패배, 말살이나 살해 등을 경험하는 것이다. 연금술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으려면 죽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암흑(Nigredo)이라고도 부른다. 자아가 죽음이나 패배로 인식하는 것을 더 깊은 중심에 있는 자기는 자유로운 해방으로 인식한다. 모래놀이치료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치료가 전환점에 들어섰고 곧 한 무리의 자기가 출현할 것을 말해준다(최영희, 김영희, 심희옥, 심미경, 2009). 그래서 이 24회기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부분이 없어지는 모래상자로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이어지는 25회기 모래상자에서는 십자가와 부처 등 성물들이 똑바로 서게 될 수 있었다. 즉 정신의 분열을 피하고 통일을 피하려는 내담자의 자기가 출현한 것이다.

26회기에는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이 나타나 말탄 기사와 싸우는 상자를 꾸민다. 이즈음 실생활에서 내담자의 통한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자신이 귀여운지 복지사선생님께 묻기도 하며 답일교사와 함께 미장원에 가서 답수룩한 머리를 다듬기도 한다. 27회기에는 수학여행을 간다며 어깨춤으로 즐거움을 몸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내담자가 꾸민 상자들은 모래상자 하단에 놓였었는데 이제 중앙으로 소품들이 올라왔다. 이즈음 내담자의 표정이 아주 밝아졌고 학교에서는 여자 친구가 생기기도 한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팔 음식을 모래상자에 꾸며 사회적으로 관계 맺는 장면을 만들어 사회적인 관계가 원만해져 감을 표현한다. 이처럼 25회기에 근원적인 전체로 향하려는 자기가 출현한 이후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행동이 줄어들어 갔다.

30과 31회기에서는 모래를 푸고 누르고 주무르며 주변에서 내담자의 어머니 연령쯤 되는 여성들에 대해 “늙어 빠진”, “똥탱이”, “화장빨” 같은 언어표현으로 이들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낸다. 그러다가 갑자기 “늙어빠진 아줌마가 진짜 보고 싶다”고 하며 유아기에 집을 나가 초등학교시기에 두어 번 학교로 찾아 온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와의 긴 투쟁을 거쳐 이 두 회기에서 자신의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직면해 볼 수 있게 되었다.

33회기 모래상자에서는 막대로 모래를 구분 짓는 작업을 하며 계속 의식화 작업을 한다. 이제 보통 여자 아이처럼 이런 저런 말들을 재잘거린다. 상담자에게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예쁜지 묻기도 하며 많이 여성스러워진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상담말기(내면의 재건축과 대극의 합일)인 36-2회기에는 “이쁜집”이라며 튼튼한 동굴모습을 만들고 “할머니가 머리를 다듬으라고 해 다듬었다”고 한다. 39회기에는 얼굴이 예뻐진 모습이고, “이제 배가 부르다”며 그동안 상담자가 제공하던 빵을 거절하는데 이는 자신의 심리적인 굶주림이 이제 채워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놀이에서는 당

당히 상담자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38회기에는 여러 가지의 종들을 모래상자에 놓고 39회기에는 “결혼을 했다”며 전통한복 차림의 서 있는 신랑과 신부상을 놓는다. 40회기에는 모래상자를 만들지 않고 중학생이 되는 이야기, 상담 종료 후 파티 이야기 등을 하며 작은 바이올린이 “귀엽다”는 표현을 한다. 이제 복지사선생님이 손톱을 깎고 오라고 하면 바로 깎고 오고 머리를 감고 오라면 감고 오며 여자아이로 외모를 갖추는데도 관심을 보인다.

내담자는 전체 치료과정에서 4번의 초를 사용하였다. 3-2 회기에는 키 쓴 오줌 싸게와 거지 소년 주변에, 4-1회기에는 결혼한 사람 주변에, 9회기에는 장애인 주변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함을 하트 모양으로 불을 밝혀 표현하고, 32회기에는 검은 돌하루방 등 어두운 존재들이 촛불 주변에 있다. 이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내담자의 감정이 올라와 33회기에 막대로 모래를 가르며 의식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36-2회기에는 튼튼한 동굴을 만들어 내담자의 내면을 재건축 한다. 사전 집 그림에서 내담자는 나중에 이 집은 헐어서 재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드디어 내담자는 자신의 집을 재건축해 낸 것이다.

39회기에는 “결혼을 했다”며 신랑과 신부를 놓는데 한 쌍의 남녀가 만들어내는 결합은 이중적인 정신구조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보여준다. Jung은 이중적인 정신구조가 하나로 되는 것을 “융합” 혹은 “대극의 합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을 의미한다(이유경, 2008). 이는 또한 연금술에서 “접합(Conunctio)”으로 대극을 합치시키는 작업인데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나 그의 성격 안에 내재하는 대극의 대결이 해결된 것을 뜻한다(Jackson, 2007).

작은 접합은 아직 제대로 분리되지 않거나 구별되지 않은 대극의 합치를 뜻하고, 큰 접합이란 대극의 합치라는 최상의 성취를 뜻하며 바로 현자의 돌(Philosopher's stone)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자의 돌은 귀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는 연금술의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촉매제이다. 이는 또한 어떤 통찰력과 인식으로도 비유되는데 이것을 얻음으로써 사람은 이 일을 일생동안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최영희 외, 2009).

다시 말해 접합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성격에 내재해 있는 대극의 대결이 해결된 것을 말한다. 즉 한 인간의 인격에서 자아와 자기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조화로운 관계가 모래상자에서 보석, 수정, 다이아몬드, 금 같은 것, 한 쌍으로 표현된 반대의 것들, 다리(교량), 결혼 혹은 신랑신부, 만다라나 성스런 소품들로 표현된다(최영희 외, 2009). 본 연구의 내담자 역시 내면에 내재한 대극이 해결되어 무뚝뚝함과 부드러움, 부정적인 말씨와 긍정적인 말씨, 강한 남성성과 약한 여성성 등 이들 간에 조화가 생긴 것이다.

이처럼 상담초기에 불안하고 사회적인 소통이 어려웠고

깊은 내면이 억압되어 있었던 내담자가 모래를 만지며 깊이 심리적인 퇴행을 했다. 상담중기에 내담자는 동 발레리나로 자신의 생동감 없는 여성성을 드러내고 내면을 치유하고 운동하며 이상한 동물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self)상이 등장하며 모래상자의 상들이 하단에서 중앙으로 올라오고 그 후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모래를 손으로 만지고 막대로 모래를 구분 지으며 의식화 되어 갔다. 상담후기에 내담자는 내면을 재건축하고 많은 종으로 의식화를 알리며 신랑과 신부를 서로 마주보게 하여 대극의 합일을 이루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

상담후반의 실생활에서 내담자는 늘 검은색 옷을 입다가 베이지색 옷도 입고 부정적인 말씨가 사라지고 여자애들과 잘 어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복지사선생님이 외모에 대해 언급만 하면 바로 행하며 학교에서 아래 학년의 어린 아이들을 잘 챙기고 보살피기도 하는데 이는 내담자의 여성성이 회복되면서 여아로서 타인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보고에 의하면 집에서 할머니 말도 잘 듣고 잘 씻고 덜렁거리는 것도 없어졌다 고 한다.

사후 심리검사로 실시된 HTP, KFD, KSD 그리고 SCT에서도 내담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후 심리검사는 사전 심리검사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특히 사후 검사에는 사전검사와 달리 첫 번째 사람 외에 사람들의 발이 그려져 있어 내담자의 부적절감이 사라지고 활동력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그림에서 동성인 여자를 먼저 그려 내담자가 자신의 여성적인 역할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시기 부모의 이혼으로 친할머니, 아버지, 오빠와 생활하며 학교에서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거의 남학생하고만 어울리며 부정적인 여성성을 지닌 내담자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이다. 내담자는 자신의 원만하지 못한 사회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촛불을 밝혀 의식화 작업을 하며 억압된 무의식이 활력을 찾아 사회적인 관계에서 무기력했고 부정적인 여성성을 갖고 몸을 씻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하며 여아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자신의 부적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밟아 모래놀이치료가 내담자의 여성성 회복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강봉규(1999). **심리검사의 이론과 기법**. 서울: 동문사.
 김동연, 공마리아, 최희선(2002). **HTP와 KHTP 심리진단법**. 서울: 동아문화사.

- 김민강(2009).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탐색.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1995). 성의 발달과 아동의 생활환경에 관한 고찰. **사회학연구**, 1(1), 361-378.
- 김진선(2003). 성역할 선호성에 따른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2006). 이혼가족 자녀에 대한 이해와 상담. **초등상담연구**, 5(1), 27-39.
- 변명숙, 성옥련(2000).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특성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61-71.
- 신민섭, 김수경, 김용희, 김진영, 박혜근, 이해란 외(2002).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HTP와 KFD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심희옥(2007). 일상의 삶에 지친 30대 여성의 사례를 통해 본 모래놀이치료에서의 저항. **모래놀이치료연구**, 3, 47-67.
- 오은순(1998).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한국심리학회: 발달**, 11(2), 62-73.
- 유가효(1994).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발달에 관한 연구: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5(1), 127-144.
- 이유경(2008). **원형과 신화**. 서울: 분석심리학연구소.
- 정용주(2007). 일반가정아동과 이혼가정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생활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희(2007).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적응: 부모자녀관계와 자아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0(8), 107-136.
- 최영희, 김영희, 심희옥, 심미경(2009). **아동상담**. 서울: 창지사.
- Adams, K.(2010). This is the house that Jake built: A boy develops ego strength.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9(1), 47-63.
- Ammann, R.(1994). The sandtray as a garden of the soul. *Journal of Sandplay Therapy*, 4(1), 46-65.
- Boik, B. L., & Goodwin, E. A.(2000). *Sandplay therapy: A step-by-step manual for psychotherapists of diverse orientations*.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Hoeberichts, J.(2003). Snakes: Separation and individuation.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2(1), 77-88.
- Jackson, B.(2007). Aspects to note in understanding individual sandtray.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수퍼비전 자료.
- Shaffer, D. R.(1994).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3rd). Belmont, CA: Brooks/Cole.
- Turner, B. A.(2005). *The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Cloverdale, CA: Temenos press.
- Weinrib, E. L.(2004). *Images of the self: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Cloverdale, CA: Temenos press.

접 수 일 : 2010년 8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0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1월 16일

〈부록 1〉 사전과 사후 심리검사

사전
	집	나무	사람 1
사후
	집	나무	사람 1
사전
	사람 2	KFD	KSD
사후
	사람 2	KFD	KSD

〈부록 2〉 모래놀이치료 과정

1회기(사람을 지키는 병사들)

2회기(등대와 어부)

24회기(동물)

25회기(불교와 기독교)

3-1회기(바다)

3-2회기(초의 사람)

26회기(영웅)

27회기(음식 파는 사람들)

4-1회기(결혼한 사람)

4-3회기(무제)

28회기(사람)

31회기(무제)

4-3회기(무제, 상을 꺼내 촬영)

7-2회기(모래 만지는 모습)

32회기(졸업파티)

33회기(무제)

8-1회기(운동하는 사람)

9회기(생일파티)

35회기(발, 탈출 추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애들)

36-2회기(동굴)

14회기(병원에 있는 사람들)

16회기(운동하는 사람들)

37회기(이집트)

38회기(종)

17회기(옛날 마을)

22회기(뱀)

39회기(남자, 여자)

41회기(차)